

일주문



1월 다보법회 설법
법장수덕사 주지는 3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익산 부사관학교서 수계
도영 김계 금산사 주지는 10일 익산 부사관학교 법당에서 열린 장병 수계법회에서 장병 180명에게 수계했다.



인연암서 방생법회
지명 법주사 주지는 2월 2일 충남 안면도 인연암에서 신사년 정초 방생 법회를 봉행한다. (043543-3615)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취임
지현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는 2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신년회의와 함께 총재 취임식을 갖는다.



제9교구 신년하례
성덕동화사 주지는 15일 본말사 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홍콩 전지지도회의 참석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홍콩에서 열리는 '전지문화지도 추진위원회' 회의의 참석차 16일 출국했다.



킹 목사 자유인권상 받아
권노갑 동국대 총 동창회장은 16일 미국 국가문화재단(NCF)이 수여하는 마틴 루터 킹 자유인권상을 받았다.



전태종 중앙신도회장 재임
김유혁 前 단국대 교수는 17일 전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재임명돼, 운석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구인사로 동용종정 친견
김요주 여성불교연합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전태종 종정 동용 스님 친견을 위해 2월 5일 단양 구인사를 참배한다.



지리산살리기 공동사무처장
입효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18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사무처장에 선임됐다.

“생활속 작은 환경운동 펴래요”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③

이웃을 돕는 사람들
위정희 사무국장



“올해는 여성 불교환경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300명의 자원봉사자와 3천여 명의 후원자, 15명의 운영위원과 한 마음이 되어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겠습니다.”

9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경부련 이웃을 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의 위정희 사무국장. 7살 바기 아들과 18개월 된 딸을 둔 엄마이자 아내, 대학원생(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으로 1인4역을 하고 있는 위 국장은 “10년 간의 크고 작은 성과를 되돌아 보면, 경전임기모임 등으로 실행을 추스리는 동시에 재정·조직 면에서 더욱 건실한 불교NGO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성 배알리성전협회장과 함께 진행한 ‘초기 경전읽기 모임’을 통해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위 국장은 주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내달 1일 주부 환경모임인 ‘어머니 환경위원회’(위원장 정법련화)를 발족, 사찰에 꽃·나무 심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환경교실을 열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회원들도 점차 늘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캠페인도 벌인다.

경부련의 환경모임 발족은 지난해 7월 제

활용 알뜰가게인 ‘내 친구 초록이’ 오픈에 이은 두 번째 환경관련 활동이다. 특히 여성 불교환경운동은 처음이어서 위 국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95년 경부련에 몸담으면서 위 국장이 펼쳐 온 복지사업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실직자의 구호와 자활을 위한 ‘아침을 여는 집’, 실직가정 어린이들을 돕보는 ‘희망 만들기 열린 학교’, 무의탁노인과 소녀소녀 가장 및 장애우를 위한 ‘자비의 집’, 제3세계의 빈곤과 아동구제를 위한 공동체 네팔 ‘아침을 여는 마을’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엄마’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저런 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다 보니 ‘시민운동의 코디네이터’란 별명을 얻은 위정희 국장은 정부와 불교계, 후원자들로부터 예산을 무리 없이 확보해 주든 거든 어려운 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입기를 언제나 기원한다.

새로운 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시민운동을 보살핌으로 승화시켜 온 그녀는 돕고 싶은 마음만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불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참여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참나, 뒤돌아보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작은 깨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대불청 회장 이·취임 법회

대한불교청년회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규범 새 회장은 “불청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만해백일장 및 불청대회를 통해 실천과 수행이 결비된 청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사암련 신년 대법회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춘광)가 주최하는 ‘신년대법회 및 효도잔치’가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월운(동국대교정원장)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이·취임식, 사암련 발전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불자(박금환, 송혜성)에 대한 공로패 전달, 구내 18개동 노인정에 대한 후원금 전달 등이 있었다.



부산·경남포교사단 신년하례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1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중 스님을 비롯 1백여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성오 스님은 “불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포교사들이 앞장서서 불자들에게 일깨우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직자 쉼터 ‘선혜마을’ 김장 담그기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직자 쉼터 선혜마을(관장 정예은)은 9일 김장 담그기를 실시했다. 양정 현대아파트 2차 부녀회(회장 공옥희) 회원 10여명이 배추 4백 포기과 양념을 준비해 온 이날 김치 담그기는 불교단체에는 불자들만 봉사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봉사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부녀회는 이날 2백 여채를 보시하며 훈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홍파·성운·자용 스님 대통령 표창



지난 17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대통령·이하 민주평통)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왼쪽), 삼천사 주지 성운(중앙), 수국사 회주 자용(오른쪽) 스님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홍파 스님과 자용 스님은 종로구와 은평구 민주평통협의회 회원으로, 성운 스님은 민주평통 종교분과 상임위원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 영광을 안았다.

“장애아동, 부처님 손길 기다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동국대서 석사학위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이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다룬 논문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불교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연구’는 불교사회복지의 취약부분인 장애인복지분야 중에서도 특히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평소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스님은 “장애인복지사업은 종교, 특히 불교 사회복지의 이념에 비해 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며 불교장애아동복지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소פק새마을, 치자마을, 상락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계 11개 시설을 중심으로 사례연구자료를 제시한 정련 스님은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재향상당과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각 복지시설에서 시행하고, 이를 위한 불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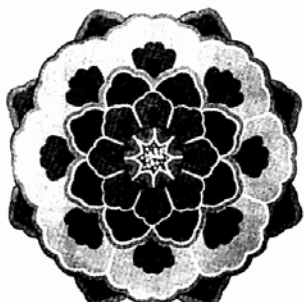
금강경 법향 가득 담긴 메주

‘금강경 메주’를 아시나요? 옛부터 음력 정월은 장 담그는 달. 금강경독송회는 매년 포항 금강정사에서 영주산 우리 콩으로 일체의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는 재래식 방법으로 메주를 제조한다.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수지독송하며 지극 정성으로 만들었기에 이름도 ‘금강경 메주’. 금강경독송회는 정성껏 만든 메주를 전국에 보급하고 그 수익금으로 북한 동포 및 결식 아동들을 도울 계획이다. (02742-0172 김두식 기자(doobi@buddhopia.com))



2001 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 바랍니다.



1. 모집 내용

-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패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신입생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3.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동), 실기시험(불교미술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6.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8. 참고사항

-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9. 기타

-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등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총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방불교대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